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체제에 대한 분석*

- 수도권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Cooperative Systems Between School and Public Libraries in Seoul and Its Outskirts

이 용 남(Yong-Nam Lee)**

< 목 차 >

I. 서론	IV. 연계·협력 체제에 대한 관련자
II.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 협력의 배경	의견 분석
III. 연계·협력 체제 관련 사례 분석	V. 시사점
	VI. 결론 및 제언

초 록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체제를 분석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 종료 이후의 새로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 연계·협력 관련자에 대한 설문지 및 면담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징적인 연계·협력 체제의 유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도서관 상호협력

ABSTRACT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ideas to develop a new pla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first five year School Library Development Plan(2003-2007)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In doing so, it analyzes cooperative systems and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school and public libraries in the City of Seoul and its outskirts. Major research methods used are associated with the following: (1) case studies in the city of Seoul, Incheon, and the Kyung-Gi province and (2) questionnaire and interviewing techniques for those who are engaged in the collaborative systems. In sum, this study analyze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cooperative systems in different regional areas. It also suggests ideas to improve the shortcomings of current systems.

Key Words: School Library, Public Library, Library Cooperative Systems

* 이 논문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6년도 동계 학술발표대회에서의 발표내용을 보완한 것임.

이 연구는 2006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lyn0802@hansung.ac.kr)

• 접수일: 2007년 5월 26일 • 최초심사일: 2007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07년 6월 22일

I. 서론

현대사회에서 도서관간의 연계·협력은 국가와 지역, 관종과 규모 여하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가치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으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5개년 계획이 2003년부터 추진되면서,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의 연계·협력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교육청이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정책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우리 학계에서도 연계·협력의 모델 개발과 실천 방안 등에 대한 여러 연구가 뒤따름으로써 도서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5개년 계획이 2007년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 이후의 새로운 계획이나 보완 조치에 대한 우리 학계나 현장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대한 편이다. 그동안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으로 인해, 전국 초·중등학교의 절반이 넘는 6천여 학교의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고 비품과 장서를 새로 마련하는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인력문제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보완하여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체제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교도서관과의 연계·협력 모습은 지역에 따라 또는 기관에 따라 그 목적과 성격이나 추진 방법과 내용이 서로 판이한 실정이다. 이는 학교도서관 지원과 육성뿐만 아니라, 도서관 상호협력 시스템 차원에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학교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1)의 연계·협력 체제의 사례와 관련자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연계·협력 활동 체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정부차원의 도서관 활성화 2단계 계획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협력의 배경

1. 미국 학교도서관 - 공공도서관 연계·협력의 발전과정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을 논하는데 있어 선진국의 사례로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시

1) 일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학교도서관과의 연계·협력이 일시적이거나 비체계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라, 이 연구에서 학교도서관 연계·협력 대상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 한정하였다.

사점을 얻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가장 바람직한 학교도서관 모델로 평가되고 있으며, 각종 저널과 연구 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지받으며 장려되고 있기 때문이다.²⁾

민주 시민사회와 국민 기초교육의 하부구조로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발전시켜 전 세계에 파급시킨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공도서관이 초기부터 다른 관종과의 협력을 본격화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러나 상호협력 시스템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Shirley. A. Fitzgibbons의 연구보고서³⁾를 중심으로 미국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 시발점은 아마도 1876년 William Fletcher가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란 유명한 보고서의 ‘공공도서관과 젊은이’란 섹션에서 공공도서관이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강조하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을 때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1897년 당시 ALA 회장이던 John Cotton Dana는 미국교육협회(NEA)에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두 기관의 상호 관계성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둘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 때 생겨난 위원회의 보고서는 처음으로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협력’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 당시의 미국만 해도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된 곳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⁴⁾ 기껏 공공도서관으로 하여금 학생과 교사의 욕구를 뒷받침하여 교육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수준이었다.

그 후 1920년대까지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봉사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이 즈음에는 공공도서관이 학교 교실에 일정량의 도서를 장기 대출하여 학급문고를 설치하고, 공공도서관 안에 학교담당 부서를 설치하게 이른다. 또한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는 ‘교사 열람실’을 두고, 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참고봉사를 강화하거나 공공도서관과 학교의 공동프로젝트로서 도서주간 행사 등을 함께 실시하는 활동이 늘어갔다. 그리고 193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학교 안에 공공도서관의 분관을 설치하여 학교에서의 도서관서비스를 대행하는 협력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41년 미국교육협회와 ALA의 공동위원회의 보고서⁵⁾에서 두 기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의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였던 것이다. 즉,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를 막론하고 모든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그들의 교육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가져야만 하며, 적절한

2) Rebeca Knuth, “학교도서관 개발요인: 미국과 영국의 비교연구,” 이윤희 역, 시민과 도서관, 제1권, 제2호(2000) p.88.

3) S. A. Fitzgibbons, *School and Public Library Relationships: Essential Ingredients in Implementing Educational Reforms and Improving Student Learning*, ASL., 2000.
 <<http://www.ala.org/ala/aasl/aaslpubsandjournals/slmrb/slmrcontents/volume32000/relationships.htm>>(cited 2006. 9. 10)

4) 미국에서 연방수준의 학교도서관 관계 법령은 1918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5) Joint Committee of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and the ALA, *School and Public Libraries Working Together in School Library Service* (Washington, D.C. : NEA, 1941).

도서관 서비스는 학급문고로서는 제공될 수 없다는 원칙이었다.

1950-60년대에 이르러서 초등학교도서관이 상당히 보편화되자 공공도서관은 학교교육의 보완적 역할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두 기관의 협력활동은 도서관서비스 및 건축법(LSCA)의 Title III에 천명되고 협력활동을 위한 재정부담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법규와 재정지원에 힘입어, 많은 주와 지역의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대출과 참고봉사를 포함한 협력서비스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 때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생산된 여러 전문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간의 협력을 더욱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National School Library Standards(1945): 두 기관의 협력 언급
- Public Library Association의 Guidelines(1960; 1964): 어린이와 청소년 서비스 언급
- Public Library Mission Statement(1979): 두 기관의 협력 강조
- Planning and Role Setting in Public Libraries(PLA Manual, 1987):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교육적 역할 제시⁶⁾

1970년부터 80년대 후반 사이에 미국의 도서관들은 많은 주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지만 그 당시에 학교도서관들은 대체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의 도서관·정보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문헌정보학위원회(NCLIS: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는 한 연구보고서⁷⁾는 “학교도서관은 어린이를 교육시키고, 그들의 미래 정보습관을 형성시키는 기본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음에도, 아직 여러 면에서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NCLIS는 즉시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조사연구토록 하고는 그 결과물로 주단위 네트워크에 학교도서관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보고서(The Role of the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in Networking, 1978)를 펴냈다.

1980년대 말, 정보활용 능력의 필요성이 학교교육에서 주요 이슈가 되자, 다시 NCLIS는 학교도서관협회(AASL)와 공동으로 ‘학교에서 정보기술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각종 회의를 주선하고 뒷받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관내 학생들이 정보를 찾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도록 하는 공공도서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증대되어 갔다.⁸⁾

6) ALA 산하의 미국 공공도서관협회가 제시한 공공도서관의 8가지 역할 중에 학교도서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는 공식교육 지원센터, 취학 전 아동의 학습센터, 자기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이 제시되어 있다. McClure, C. R., et al. *Planning and Role Setting for Public Libraries* (Chicago: ALA, 1987), p.28.

7) NCLIS. *Toward a National Progra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Goals for Action*(Washington, D.C. : NCLIS, 1975), p.xii.,

8) Michael Goreman, The Domino Effect, or Why Literacy Depends on All Libraries, *School Library Journal*, 41, 4(1995), pp.27-29.

1990년대에 들어서자 도서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가차원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미국교육통계센터(NCES)에 의해 수행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직원, 서비스, 자료 등)실태조사,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백악관회의(WHCLIS),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 연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NCLIS가 1993년도에 연이어 3차례 개최한 Open Forum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회와 행정부에 대해 미래의 도서관 프로그램과 계획을 권고하기 위해 개최한 Open Forum의 결과 중 의미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에 대한 도서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와 기타의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센터가 되어야만 한다(Open Forum, Boston).
- 이러한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도서관이 협력하여야 할 분야는 장서관발, 자료 공동이용, 유아 프로그램, 전자 네트워킹, 세대간의 프로그램, 복합문화 프로그램 등이다(Open Forum, Boston).
-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과 주 차원의 계획이 요구된다(Open Forum, Boston).
-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각기 설치·운영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때 두 기관 협력의 강력한 동반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대치할 수는 없다(Open Forum, Sacramento).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미국의 경우는 오랜 동안 부족한 학교도서관과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인근 공공도서관에 위임한다거나, 공공도서관 분관을 학교 안에 설치하거나,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복합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등의 여러 노력이 있어왔지만, 결국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독자적인 도서관으로 상호협력의 시스템 속에서 기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Fitzgibbons는 미국 전 지역에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연계·협력하는 사례를 조사·분석한 후, 협력의 유형을 크게 다음과 같이 4개의 범주로 정리하였다.⁹⁾

- ① 네트워크와 자료의 공동이용 협력
- ② 장서관발에서의 협력
- ③ 정보서비스와 교육 제공을 위한 협력
- ④ 독서와 문해(문맹퇴치) 증진을 위한 협력

2. 우리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협력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도입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을 배경으로 초·중등학교에 학교도서

9) S. A. Fitzgibbons.. 전계논문.

관이라는 새로운 기제를 적용하기 시작한 이래, 교육현장의 선구적인 지도자들의 실천적 활동과 일부지역 교육행정 당국의 제도화 노력에 힘입어,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비교적 의욕적인 활동과 발전을 지속하여 왔으나 1970년 대 이후 1990년대 까지 우리의 학교도서관은 교육현장에서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침체되기 시작하였음은 잘 아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역시 1980년대까지는 양적·질적으로 절대 열악한 형편으로 자체 조직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어서 다른 관중간의 협력을 생각할 형편이 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70-80년대에도 학계 일각에서나 현장에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들이 간혹 보이거나,¹⁰⁾ 현장에서도 연계·협력을 시도한 사례 보고¹¹⁾가 있기는 하였으나 현장의 실천력이 이를 뒤따르지 못했음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 학교도서관 주변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침체되어 기진맥진 했던 학교도서관 에너지가 90년대 교육개혁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 희망의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하였다. 학교도서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로서는 7차 교육과정의 시행, 시민단체 주도의 학교도서관 운동,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독서 담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¹²⁾

그 결과물로서 2002년 8월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국 이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체계적인 학교도서관 살리기 정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종합방안은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의 시설, 장서, 운영인력, 재정을 개선하고자 5개년 동안 3,000억원을 투입하여 6,000개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획기적인 계획이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도서관활용 프로그램 강화,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강화,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이었으나, 전담인력 문제에 대한 보장 장치를 마련치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담인력 방안이 빠진 이 계획은 '민관협력체제 구축'의 범주 속에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추진되면서 교육 정부부처와 학계, 그리고 현장에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0) 한윤옥, "공공도서관의 청소년들에 대한 봉사에 대하여-학교도서관과의 협조적 측면에서-," 한국비블리아학회, 제3호(1978), pp.39-55.

조재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 도서관보, 제8권(1979. 11) pp.13-18.

손경숙,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 자료 이용 상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87) 등.

11) 인천광역시 대표도서관인 북구도서관에서는 1993년부터 효성초등학교와 결연을 맺고 4-6학년 18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협력활동을 1년 4개월간 추진한 적이 있다 한다. 김지현,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방안-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제38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논문집(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0), pp.23-24.

12) 김종성, "현단계 우리 학교도서관의 변화와 도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9) pp.70-76.

Ⅲ. 연계·협력 체제 관련 사례 분석

학교도서관 변화의 바람과 함께 학교도서관 운동의 에너지는 정부당국을 설득시켜 교육인적자원부내에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탄생시켰다.¹³⁾ 즉, 2001년에 인적자원정책국 산하에 조정2과를 두어 '대학 및 초·중등학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케 하였는데, 이 업무는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기구개편에 따라 국제교육정보화국 산하의 교육정보화지원과로 이관되었으며, 그 후 다시 개편되어 현재는 국제교육정보화국 지식정보기반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에 학교도서관 소관부서가 명확히 정해지고 사서사무관과 사서주사를 배치한 일은, 그동안 교육담당 중앙부처에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업무분장 부서조차 확실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자면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변화와 영향력은 지방교육행정 당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각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계 정비는 지금까지 학교도서관이 거의 자연발생적인 현장의 역량에만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행정의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즉, 각 시·도교육청은 중등교육과 또는 초등교육과에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담당 장학사나 일반직 사서를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지역에서는 시·군단위의 지역교육청에까지 사서직을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지원·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학교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체제에 관련된 여러 현안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서울특별시는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와 특별 인력을 가동하는 특징이 있고, 경기도 지역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정규 사서직을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지원업무를 전담시키는 체제로서 특징적이며,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연계·협력 체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협력 체제의 대표적 유형이라 판단되는 이들 3개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서울특별시 사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과 교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2001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 10월에 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내에 최초로 사서직 1명을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지원 관련 행정을 담당토록 하였으

13) 당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의 당면 과제로 추진하던 학교도서관 담당부서 설치 현안은 대표를 맡고 있던 김영환 국회의원이 국회 국정질의를 통해 관계 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이루어졌다. 비록 전담과 설치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조정2과의 9가지 업무 중 1가지 업무로서 뿌리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며, 공공도서관 행정업무는 과거부터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여 왔으므로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협조 체제를 이루어 처리한다.

공공도서관에서의 학교도서관 연계협력 체제는 중앙정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계획 이전에 이미 발족되었다. 즉, 2001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산하 17개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팀'을 구성하여 학교도서관과 협력하도록 하였는데, 이들 학교도서관지원팀은 당초 2년간의 한시적인 기구(5개 도서관)와 태스크포스 기구(12개 도서관)의 두 종류로 출발하여 오늘날 서울시의 특징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¹⁴⁾

태스크포스로서의 학교도서관지원팀은 용산, 종로 등 12개 도서관에 두었었는데, 추가인력 없이 도서관 내부의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얼마간 운영하다가 그 기능을 다른 5개 도서관으로 넘기고 해체되었다. 그러나 한시기구로서 학교도서관지원팀을 두었던 정독, 남산도서관 등 5개관에는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는 시립도서관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도서관지원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체제이다.

이들 학교도서관지원과를 두고 있는 도서관은 서울시 전역을 5개 지역으로 분담하여 관내 초, 중, 고교의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각 도서관마다 9명 정도의 계약직 순회사서를 고용하여 관내 학교도서관을 순방하며 인력지원을 하고 있는 특징적 제도이다(표 1 참조).

〈표 1〉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조직 현황¹⁵⁾

기구 명칭		해당 도서관	담당과 직원수	순회사서수	지원 대상 지역	지원대상 학교수
2001년	2004년					
〈한시기구〉 학교도서관 지원팀	〈상시기구〉 학교도서관 지원과	정독	8명	8명	종로구, 중구, 용산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342개교
		남산	8	9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249
		양천	5	9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224
		동대문	4	9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171
		강서	5	9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274
계			30	44		1,266

지원 대상지역의 학교도서관에서는 해당 도서관에 지원 신청절차를 통하여 지원일자 및 지원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어, 지원 대상지역의 모든 학교가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사서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도서관이 중심대상이기 마련이며, 비교적 사서교사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지원요청이 적은 편이다.

14) 한시적 기구로서 인력배치를 수반한 학교도서관지원팀 설치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기 시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당시 IMF로 인한 구조조정의 물결에 보직을 잃고 대기발령 중인 서울시립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배려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서울시 D도서관 L과장과의 면담).

15) 서울특별시립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원 <<http://www.lib.seoul.kr/>>(인용 2007. 4. 25)

서울시의 초등학교 도서관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규직 사서교사나 일반사서가 배치된 곳이 매우 적다.¹⁶⁾ 그래서 계약직 사서지원을 받는 곳이 꽤 있는데, 그나마 한 학교당 1년에 6개월 분(1개월에 80여만 원 정도)의 인건비만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기간의 인건비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원받는 곳이라도 어느 곳은 근무기간이 연속적인데 반해 어느 곳은 방학 기간은 학부모도우미 등 자원봉사자로 운영토록 하는 등 불규칙적인 편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한 공공도서관에 2-3인을 1조로 편성하여(직원1명, 순회사서 1-2명) 학교에 며칠씩 출근하며 해당 학교도서관의 일상 업무를 처리해주는 인력지원을 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순회사서를 통해 공공도서관 직원이 학교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업무들은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편인데 그 주요내용과 2005년도의 실적은 <표 2>와 같다.¹⁷⁾

<표 2> 서울시의 공공도서관별 학교지원 실적(2005년도)

구분	계	정독	납산	양천	강서	동대문	
(총 지원학교 수)	682개교	162개교	145개교	126개교	151개교	98개교	
지원 내용	DB구축	687	249	123	99	127	89
	DB 변환	60	15	7	9	12	17
	DB 수정	166	23	16	49	39	39
	장서점검	151	34	24	51	27	15
	진급처리 ¹⁸⁾	328	63	102	75	30	58
	운영교육	250	54	39	61	35	61
	지원상담 건수	6,338건	1,884건	897건	2,135건	789건	633건

한편,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이들 도서관은 지역사회 주민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자치구로부터 사서 인력, 시설, 장서확충 등의 경비를 지원받는 도서관으로 다음의 두 형태가 있다. 첫째의 경우는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도서관의 경우이다. 강남구는 2001년부터 구청의 재정부담으로 학교도서관에 작은전자도서관을 개설한 후, 학생들에게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조건의 학교도서관을 현재 22개 운영 중이다. 이들 도서관은 구청의 운영비 지원(도서관구입비 및 경상비 : 연간 2천여 만원)과 계약직 사서1인 및 아르바이트 인력지원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1/2씩을 부담하여 학교당 연간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학교인데, 2005년 10개 학교로 시작하여 2006년 말 현재 강남구 이외의 서울 지역에 총 24개교(보통 1구에 1개교 정도, 초 8개교,

16) 서울시는 1,206개 학교도서관 중 사서교사 153명, 계약직 사서 502명으로 54%의 사서인력 배치율을 보이고 있는데(2006. 4 현재), 사서교사는 대부분 고등학교에, 계약직 사서는 대부분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17) 정해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인원 배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마당 <<http://www.sen.go.kr/sen/servlet>>(인용 2007. 4. 20)

18) 신학년 진급시 이용자 정보 수정을 말한다.

중 10개교, 고 6개교)가 4있으며, 역시 지자체 예산으로 계약직 사서를 유지하고 있다.¹⁹⁾

그런데 이들 도서관은 관내 공공도서관에 별로 업무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등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에는 소극적인데, 자치구의 재정지원으로 설치·유지한다는 점과 계약직이더라도 지속성 있는 사서 인력이 갖추어져 있어 웬만한 업무는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과의 연계·협력을 소원하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⁰⁾

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연계·협력체제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수한 시스템의 하나이다. 즉, 교육청 내의 학교도서관 지원조직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미비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청 소관 5개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과’와 ‘순회사서’제를 두고 인력 방문지원으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해 주는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경기도 사례

경기도의 학교도서관운동은 일찍이 시민단체의 주도로 시작된 점이 특징적이다. 1996년 수원여성회가 수원시민 대토론회에서 학교도서관문제를 제기한 후, 98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학교도서관 사서과전 사업을 개시하고, 이어서 안산, 군포 등지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등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운동은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경기도교육청은 중등교육과에 2001년 9월부터 사서직을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2003년에 이르러서는 중등교육과 내에 상설 행정조직으로 ‘학교도서관지원팀’(담당장학사 1명, 사서직 3명, 행정직 1명)을 구성·운영하면서 학교도서관 지원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지역교육청 단위로 몇 명씩의 순회사서(계약직)를 채용하여 서울시의 경우처럼 관내 학교도서관을 순회방문하며 도서관 업무의 인력지원을 하도록 하였는데 효과가 미약하고 운영이 어려워²¹⁾ 2003년 한해 시행하다가 중단하였다. 그리고는 2004년 4월에 33명의 전문직 사서를 채용하여 25개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무과에 1-2명씩(국 단위인 8개 지역교육청에는 2명)의 정규 사서직을 배치하였는데,²²⁾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체제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경우, 공공도서관관련 업무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학교도서관 업무는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직 편제에서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양

19) 서울특별시 교육청, 2006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계획.

20) 강남구 K 초등학교 사서와의 면담(2006. 10. 13)

성북구 D 초등학교 사서와의 면담(2006. 10. 18)

21) 시·군단위의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며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처리해주는 전문직 순회사서(계약직)의 지원자가 점점 없어져 지속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이는 농촌지역 학교를 순회하여야 하는 교통문제도 한 요인이었다고 한다(교육청 A사서와의 대담, 2006. 11. 8).

22) 당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기존의 ‘경기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

부서의 조율이 필요한 때가 많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2007년부터 관련 양부서의 도서관 담당업무를 한 곳으로 합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평생교육과'내에 '도서관지원담당'(계수준) 조직을 두고, 사서사무관 밑에 사서주사 2명, 사서주사보 1명, 사서서기 1명, 사서교사(파견직) 1명 등 총 6명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업무관장 부서의 일원화 주장은 그간 여러 논문에서 있어왔는데,²³⁾ 일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는 학교 현장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학교 장학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를 선호하는 주장도 적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 담당부서 일원화 개편은 앞으로 그 효과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적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기도 관내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과의 연계·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도교육청 소속의 도립도서관 중 독립 운영관인 도립중앙도서관, 과천도서관, 성남도서관 등이 도내 전 지역의 학교도서관을 3등분하여 협력 체제를 유지해오고는 있으나, 이들 도서관에는 학교도서관 지원부서도 별도로 없이 '정보봉사과' 업무 중 하나로 학교도서관 대상의 ① 순회문고와 협동문고 운영, ② 어린이를 위한 독서교실 운영, ③ 학교도서관 도우미 실무지도, ④ 도서관 현장학습 등의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뿐, 서울시 관내 공공도서관처럼 인력지원성 연계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전국 평균의 2배가 훨씬 넘는 전담인력의 학교도서관 배치율²⁴⁾과 초창기의 열악한 수준을 개선한 계약직 사서의 보수 현실화, 그리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지원전담 사서직 배치 강화의 기반 위에서 가능한 연계·협력 방침이라고 판단된다. 즉, 교육청 당국은 학교도서관 행정 및 지원의 기본체제 구축에 힘을 경주하고,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력지원성 연계가 아니라 보편적인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사례를 요약하자면, 도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공공도서관은 보편적인 상호협력 활동만을 담당하고 있는 연계·협력 체제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적인 모습이다. 즉, 도교육청 '평생교육과'내에 '도서관지원담당'(계수준) 조직을 두고, 사서직 총 6명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1-2명씩의 사서로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협력은 보편적인 협력활동에만 국한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3) 한윤옥, 박철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협력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 (2004. 3) p.352.

서현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학 전공, 2006), p.58, 62.

24) 경기도의 경우 1,834개 학교 중 1,714개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서가 981명(사서교사 36명, 비정규직 사서 945명) 배치되어 57%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06 열린 학교도서관 운영 종합발전계획). 전국의 평균 사서 배치율은 2006년 4월 현재 사서교사 313명, 일반사서 57명, 계약직 사서 1,881명으로 전체 학교도서관 9,696개교의 23% 수준이다.

3. 인천광역시 사례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계획 이후인 2003년 에 중등교육과 내에 담당 장학사와 사서주사 1명을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와 마찬가지로 산하 5개의 지역교육청 단위에는 사서직을 두지 못하고 담당 장학사가 겸무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이나 지도방침은 시교육청 사서가 세우고 꼭 필요한 현장 방문지도는 시교육청 사서와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가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리하고 벽찬 실정이다.²⁵⁾

이를 극복하고자 시 교육청의 특색적인 활동으로 교육청 내에 ‘학교도서관 헬퍼(Helper)단’이란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활로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헬퍼단은 관내 공공도서관 사서 8명(각 도서관 당 1명), 교육연수원 사서 1명, 사서교사 중 18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인 1조가 되어 하루에 몇 개 학교씩 일정을 정한 후 3시 이후에 현장을 방문, 지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준다.²⁶⁾ 2006년 운영 실적을 보면, 총 87개 학교에 95회 방문 지도하였다 한다.²⁷⁾

이와 병행하여 관내 교육청 산하의 8개 공공도서관(북구, 중앙, 부평, 주안, 화도진, 서구, 계양, 연수) 이 각 도서관 당 30여 개교부터 많게는 90개교(강화군을 포함하고 있는 서구도서관)의 학교도서관과 연계·협력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 문헌정보과의 한 가지 업무로서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원업무는 대체로 자료 구입·정리를 위한 외주업무 지도, 자료 폐기절차 지도·자문, DLS 문의 처리, 담당자 교육, 순회문고 등의 업무인데, 일상적 업무의 인력 지원은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가급적 전문적 업무의 지도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²⁸⁾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으로는 학교도서관 현장에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가 너무 적 으며,²⁹⁾ 대다수의 학교도서관이 교과담당 교사나 도우미 인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의 학교도서관 연계·협력의 바탕이 취약할 뿐 아니라 그 성과를 거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2005년 6월에 관내 전체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 공공도서관이 지원하는 도움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서 1순위로 지적한 응답은 바로 “1~2회로는 도움 안 된다”는 반응(과반수 이상)이었다. 이어서 교육청 당국에 대한

25) 인천 교육청 지원협력 담당 F 사서와의 면담(2006. 10. 25).

26) <<http://www.ice.go.kr/service/lib/pds/list.asp>>(인용 2007. 4. 15).

27)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 활성화 우수사례집(제2장) : 교육청 학교도서관 시책 모음, p.93.

<<http://www.moe.go.kr/main.jsp?idx>>(인용 2007. 4. 15)

28) 인천광역시 P도서관 S사서와의 면담(2006. 10. 25일).

29) 인천시내 총 440개교 중 25명의 사서교사와 70명의 계약직 사서가 배치되어(2007. 4. 1일 현재), 약 21%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을 뿐인데, 그나마 계약직을 위한 지원금은 여러 학교에 골고루 기회를 주어야 하니 해당 학교에서는 인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1순위의 건의는 역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56%)였음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협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밑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³⁰⁾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요약하자면, 시교육청과 공공도서관이 모두 학교도서관 지원조직이나 인력이 미비한 관계로 양 기관이 나누어 여건상 가능한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연계체제로서, 다른 대부분의 시도와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비상근 조직인 ‘헬퍼단’의 도움으로 학교도서관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공공도서관은 서울시와 같은 인력지원은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전문적 업무의 지도에만 치중하는 협력활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IV. 연계·협력 체제에 대한 관련자 의견 분석

사례조사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지원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담당 사서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체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연계·협력 체제 설문조사 결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협력 관련부서와 광역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담당 사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간단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총 80명의 관련자에게 이메일 설문지를 보내어 61명이 응답하였다(회수율 76%). 설문내용 중에서 ‘공공도서관 중심의 학교도서관 연계체제’와 ‘교육청 중심의 학교도서관 연계체제’³¹⁾의 장단점에 대한 반응만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공도서관 중심의 학교도서관 연계체제에 대한 반응

이 연계체제는 서울시의 특징적 유형으로서,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지원역할은 최소한도로 유지하고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관내 학교도서관을 지원토록 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 유형에 대한 응답을 빈도순으로 보면 <표 3>과 같다.

30) <<http://www.ice.go.kr/service/lib/pds/list.asp>>(인용 2006. 10. 25)

31) 인천시의 사례는 공공도서관 중심의 연계협력 뿐 아니라 교육청 중심의 연계협력 체제도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보다는 특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관계로, 별도의 특징적인 유형으로 범주화 하지 않았다.

〈표 3〉 공공도서관 중심의 연계체제에 대한 장단점

응답순위	장 점	단 점
1	공공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독서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운영이 가능하다.	학교의 내부 실정 파악이 어려우며, 학교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지원·협조사항을 잘 지키지 않는다.
2	공공도서관에는 전문 인력의 숫자나 경험이 풍부하므로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업무를 지원하는 일은 수월하다.	1년에 1-2주 방문하여 지원해주는 업무처리로서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을 대치할 수는 없다.
3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협력은 관중을 불문하고 도서관 네트워크 일환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두 도서관은 기능이 다른데, 공공도서관 사서의 업무지원만으로는 학교도서관 고유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4	학교도서관에 인력이 미비한 실정에서 공공도서관의 순회사서제는 도서관 관리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도서관 활용수업'이나 '정보활용 교육' 등의 지원이 매우 어렵다.

나. 교육청 중심의 학교도서관 연계체제에 대한 반응

이 연계체제는 경기도의 특징적 유형으로서 지역교육청 단위에 전문 사서직을 배치하여 관내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며, 공공도서관은 상호협력 활동으로 적합한 활동만을 선택하여 연계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 유형에 대한 응답을 빈도순으로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교육청 중심의 연계체제에 대한 장단점

응답순위	장 점	단 점
1	학교와 다른 관중 도서관과의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교육청의 영향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교육청이 학교도서관의 실정을 공공도서관 사서보다는 잘 알고 있으나 지원업무보다는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2	학교도서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 모델개발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이 없다면 지역교육청의 사서직 1-2명으로 관내 모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3	지역교육청에 사서직이 배치되면 전문성에 기초하여 도서관 활용수업, 정보활용 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사서의 지역교육청 배치로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 관련 장학지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학교 내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해시켜 업무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대부분 지역교육청의 사서는 경력직보다는 신규직 위주로 배치되어 업무 처리에 애로가 크다.
5	공공도서관 지원보다는 교육청의 지원·협조 사항을 학교에서 더 잘 준수한다.	

2. 관련자에 대한 심층 면담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자 학교도서관 지원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교육청의 사서 또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에게 현재와 같은 연계·협력 체제에 대해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깊이 있는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의 범주 안에 있는 답변들이었으나, 설문지 응답을 보완할 수 있고 보다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었다.

첫째로, 공공도서관 중심의 학교도서관 연계체제에 대한 여러 심층적 반응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중심의 연계·협력 체제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님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 배치가 요원한 현 실정에서 이를 최소한도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간까지 순회사서제를 통한 공공도서관에서의 인력지원 협력활동은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고 믿으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³²⁾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지원과나 순회사서 체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일반교사나 학부 모 도우미 등 안정성 없는 인력으로 되어 있는 한, 한 두 차례의 공공도서관 지원만으로 정상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과를 거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은 자료정리 등의 기술적 일뿐만 아니라 학생과의 접촉 등 교육적 기능이 핵심인 만큼, 도서관 활용수업이나 교과 담당교사와의 협력수업 등은 공공도서관 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전담인력이 학교에 먼저 배치된 다음에야 연계·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³³⁾
- 저희들 순회사서는 2-3명이 한 학교에 10일 전후 방문하여 DB구축 및 변환, 장서점검, 운영교육, 진급처리 등 학교의 전담 사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씀하시는 도서관 활용수업이나 정보활용 교육 등의 수업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교육학의 배경이 없는 일반사서가 감당하기도 어렵거니와 또한 며칠 동안의 노력지원으로 될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³⁴⁾
- 어떠한 관종의 도서관이든지 연계·협력의 본질은 도서관간의 협력을 통해 상호간에 자원과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것인 만큼,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 인력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연계체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형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믿고 고위 정책 당국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력배치를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입니다.³⁵⁾
- 우리 학교는 제가 사서교사로 있어서 공공도서관에 순회사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전담인력 없는 학교는 당장 일 처리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어느 초등학교의 경우는 상근인력이 없어 잡스러운 일까지 모두 미루어 놓고 있다가 인부에게 일 시키듯이 순회사서에게 떠넘기는 모습 보고 민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고유 역할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하루 빨리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³⁶⁾

32) 서울 B시립도서관 지원협력 담당 L 사서와의 면담(2006. 10. 18).

33) 서울 A시립도서관 지원협력 담당 경력의 Y사서와의 면담(2006. 10. 16).

34) 서울 D시립도서관의 P 순회사서와의 면담(2006. 12. 4).

35) 서울 C시립도서관 지원협력 담당 K 사서와의 면담(2006. 10. 20).

36) 서울 C고등학교 도서관 S사서교사와의 면담(2006. 11. 20).

둘째로, 교육청 중심의 학교도서관 연계체제에 대한 의미 있는 면담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도서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 모델개발 등 학교도서관 운영전반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여러 지원은 교육청의 지도가 아니었다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협력만으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³⁷⁾
-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사서가 전문적인 도서관 업무를 지도·지원하는 일은 분명 도움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 관내에 40 여개의 학교 중 불과 15개교에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데, 교육청 내의 행정업무 처리, 도서관 담당자 교육(연간 4회)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현지 출장·지도 날짜는 한 달에 절반 정도밖에 되지 못하며 그것도 위 어른의 눈치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하니 지역교육청 사서가 관내 모든 학교도서관의 도서관 활용수업, 도서선정, 자료전산화, DB구축 등 실질적인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전문 사서직의 지원도 근본적으로는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 배치를 전제로 하여야만 합니다.³⁸⁾
- 지역교육청 내에 일반직 사서가 배치된다고 해도 학교도서관의 일상적 관리 업무는 모르지만, 도서관 활용수업이라던가 독서교육 관련 장학지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을 교육과정과 연계시키거나 정보활용 교육, 독서지도 등의 효과를 거두려면 교육청에 도서관을 이해하는 전담 장학사 배치가 더욱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사서직이 필요하다면 교육전문직 사서가 장학사와 함께 배치되어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체제가 되어야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³⁹⁾
-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공공도서관 중심 연계체제이던 교육청 중심 연계체제이던 어차피 임기응변식의 한시적 제도일 수밖에 없으니,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의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 이후에는 개개 학교도서관의 알맹이를 채우고 자생력을 갖추는 방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한 후에야 연계·협력이던, 무엇이던 해야 할 것입니다.⁴⁰⁾

V. 시사점

수도권 지역의 사례조사 결과를 보자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 조직의 구조와 공공도서관의 지원인력 배치 정도에 따라 특성을 보이며 각기 그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조사에 덧붙여 관련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

37) 경기도립 A도서관 K관장과의 면담(2006. 11. 22).

38) 경기도 E시 지역교육청 담당 B사서와의 면담(2007. 4. 20).

39) 서울 B중학교 L사서교사와의 면담(2007. 4. 24).

40) 인천시 C도서관 P사서와의 면담(2007. 4. 17).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 중심의 연계체제

서울특별시의 학교도서관 연계·협력 체제는 공공도서관 중심의 연계체제로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 유형인데 이러한 도서관네트워크는 보편적인 상호협동체제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인력지원성 협력활동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하더라도 차선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학교도서관 관리운영에 일정부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전담인력을 갖추지 못한 학교도서관에 1년에 1-2주 정도의 일과성 인력지원으로 해당 도서관이 지속될 수 없다는 원천적인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순회사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할 수 밖에 없어, 학교도서관 궁극적인 목표인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정보활용 교육 등 도서관활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제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인력 지원성 협력활동은 한시적인 차선택임을 인정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려는 정책당국의 구실이 되거나 혹은 그 문제해결의 소극성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위한 구실로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의 가치는 도서관간의 보편적인 상호협력 활동의 본질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호협력 체제란 도서관간의 상호대차, 종합목록의 작성, 공동 목록, 공동수서, 서지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통해 도서관 자원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으로 도서관과 이용자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관간 협력활동인 것이다.⁴¹⁾ 또한 미국의 발전과정(Ⅱ장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itzgibbons가 미국 전 지역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협력 사례를 조사하여 그 유형을 ① 네트워크와 자료의 공동이용 협력 ② 장서개발에서의 협력 ③ 정보서비스와 교육 제공을 위한 협력 ④ 독서와 문해증진을 위한 협력 등 4개의 범주로 정리하여 보고한 내용도 시사하는 바 크다.

2. 교육청 중심의 연계체제

경기도의 특징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교육청 중심의 연계체제는 학교도서관 정책 추진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할 만 하다. 관내 공공도서관은 보편적인 연계·협력 활동만을 담당하고, 도교육청

41) 이용남 등,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 개발 연구(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1), p.6.

및 지역교육청 단위에 전문사서직을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행정 및 현장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경기도의 경우 다른 시도 보다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비율이 높기는 하나 아직도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 수가 많은 실정에서, 지역교육청의 1-2명의 사서직이 관내 모든 학교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학교 단위에 전담인력 배치 후에야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지원체제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과의 연계·협력도 원숙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담인력을 갖춘 학교에 대한 연계·협력의 효과는 기대해 볼만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공공도서관과 중심의 연계체제에 비해 교육청 중심 연계체제의 긍정적인 점은 바로 학교도서관이 정보활용교육, 도서관 활용수업 등의 수행능력 여건이 좋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역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지원담당 인력이 거의 행정직 사서 위주로 되어 있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로서는 역시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에 배치하는 사서직은 사서교사 위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서교사직 교육연구사나 장학사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학교도서관 장학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체제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 연계·협력 관련 사서들에 대한 설문지 및 면담조사를 통해, 특징적인 연계·협력체제의 유형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체제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 조직의 구조와 공공도서관의 지원인력 배치 정도에 따라 각기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 중심의 지원체제는 서울시의 특징적인 유형인데, 인력 지원성 연계활동에 치중하고 있어 보편적인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에서, 한시적인 차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담인력을 갖추지 못한 학교도서관에 간헐적인 방문을 통한 인력지원으로는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하며, 순회사서의 일상업무 지원으로는 학교도서관 본연의 역할인 도서관 활용수업·정보활용 교육 등에 대한 실제적 도움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력 지원성 연계·협력 활동은 자칫하면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구실로 오용될 가능성

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의 가치는 도서관간의 보편적인 상호협력 활동의 본질에 부합되어야 하는 만큼, 어느 도서관이 다른 관중의 도서관에 인력을 지원하는 활동과는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육청 중심의 연계체제는 경기도의 특징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관내 공공도서관은 보편적인 연계·협력 활동만을 담당하고, 도교육청의 계단위 5-6명의 사서직과 지역교육청 단위에 1-2명의 사서직 배치로 학교도서관 행정 및 현장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체제는 학교도서관 정책추진 과정의 방향성으로는 의미를 부여할 만 하나, 역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밝혀졌다.

우선 아직도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 수가 많은 실정에서, 지역교육청의 사서가 모든 학교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학교 단위에 전담인력이 배치된 후에야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지원체제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도 원숙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청 중심의 지원체제가 자랑할 수 있는 점은 학교도서관이 정보활용교육, 도서관 활용 수업 등의 도서관활용 프로그램 수행능력 여건이 양호하다는 점이나, 현실적으로는 지역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지원담당 인력이 거의 행정직 사서로 되어 있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로서는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에 배치하는 사서직은 사서교사 위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서교사직 교육연구사나 장학사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학교도서관 장학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5개년 계획(2003-2007)은 매우 획기적인 도서관 정책으로서, 몇몇의 평가보고서에서도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 부분에 치중된 아쉬움은 또한 부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임시방편 처방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과의 연계·협력 활동이 강조된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자체적으로 존립·운영되어야 하며, 다른 도서관과의 연계·협력은 보편적인 상호협력체제의 틀 속에서 발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2007년 이후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2단계 계획은 사서교사의 연차별 배치계획과 교과교육과 연계한 도서관활용 프로그램 개발·운용 등 소프트웨어적 정책 개발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권은경.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제고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지원 방안." 사회과학연구(대구대학교), 제10권, 제2호(2002), pp.35-52.
- 김용철, 이병기.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성 및 미디어센터 모형 개발. 대전: 충남교육청. 2000.

- 김중성. “현단계 우리 학교도서관의 변화와 도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9), pp.67-92.
- 노영희, 권재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평가 조사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서현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학 전공, 2006.
- 손경숙.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 자료 이용 상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87.
- 이용남 등.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 개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1.
- 장유경. 공공도서관과 초등학교도서관의 상호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 조재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 도서관보, 제8권(1979. 11), pp.13-18.
- 차미경 외. 도서관 활성화 2단계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6.
- 한윤옥. “공공도서관의 청소년들에 대한 봉사에 대하여-학교도서관과의 협조적 측면에서-” 한국비블리아학회, 제3호(1978), pp.39-55.
- 한윤옥, 광철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협력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2004. 3), pp.337-357.
- Fitzgibbons, S. A. *School and Public Library Relationships: Essential Ingredients in Implementing Educational Reforms and Improving Student Learning*. ASL., 2000.
<<http://www.ala.org/ala/aasl/aaslpubsandjournals/slmrb/slmrcontents/volume3200/relationships.htm>>(cited 2006. 9. 10)
- Goreman, Michael. “The Domino Effect, or Why Literacy Depends on All Libraries.” *School Library Journal*, Vol.41, No.4(1995), pp.27-39.
- Joint Committee of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and the ALA. *School and Public Libraries Working Together in School Library Service*. Washington, D.C. : NEA, 1941.
- Knuth, Rebeca. “학교도서관 개발요인 : 미국과 영국의 비교연구.” 이윤희 역, 시민과 도서관, 제1권, 제2호(2000), pp.87-99.
- McClure, C. R., et al. *Planning and Role Setting for Public Libraries*, Chicago: ALA, 1987.
- NCLIS. *Toward a National Progra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Goals for Action*. Washington, DC: NCLIS, 1975.